

서울시, 골목길 핫플레이스 발굴... 지역주민 피해도 개선

‘관광 스포츠도시’ 정책 비전 실현 골목길 스토리텔링... 명소 재탄생 주민피해 자치구 공모로 1개소 지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본격화 등 국제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 나서



오버투어리즘으로 고통받는 북촌 한옥마을 일대.

서울시가 합지로(‘합’과 ‘을지로’)를 합쳐 만든 신조어로 중구 을지로3가 일대를 일컫는 말)와 용리단길(‘용산’과 ‘경리단길’의 합성어로 용산구 한강로2가를 이르는 말)의 아성을 뛰어넘을 골목길 명소를 발굴해 홍보하고,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피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구축에 착수한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도 본격화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는 ‘매력 있고 활력 넘치는 관광 스포츠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 실현에 나선다.

우선 시는 올 상반기 서울의 특색 있는 골목길 핫플레이스를 발굴해 관광 자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골목길에 스토리텔링을 부여, 누구나 찾고 싶은 명소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시는 테마별 코스를 구성하고 골목 인근 공방과 음식점, 여행사 등 민간과 협력해 일상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골목길 30선’을 선정하고 홍보 콘텐츠를 확산해 각 골목에 매력적인 이미지를 입힌다는 구상이다.

주거 지역이 관광지가 돼 오버투어리즘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줄 방침이다. ‘주거 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자치구 공모를 열고 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관광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꾸려 자치구 사업 계획서를 검토,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 1개소를 선정해 약 2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시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선정 추진과 2024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개최를 통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나선다. 오는 4~7월 대한체육회의 국내 유치도시 공모에 지원해 선정되면 올 8~9월 서울시의회와 유치 동의안 의결을 거쳐 내년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달부터 서울의 정체성과 문화적 감성 등을 담은 올림픽 유치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림픽 개최비용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2026년까지 잠실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2029년까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한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세미나, 여론조사, 범시민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시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올 5월에는 시 전역에서 ‘서울페스타 2024’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방문을 유도한다.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5월 4~5일 노을공원에서는 한국 고유 구이문화를 경험하는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스타 셰프가 구워주는 구이를 먹을 수 있는 ‘바비큐 맛’ 체험존이 운영된다. 같은달 4일엔 광화문광장에 뷰티·패션·미식·게임 등 서울 스타일을 상품화해 선보이는 쇼케이스를 조성, 전시와 공연이 결합된 로드쇼를 펼친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 확보

올 자치구 총예산 22.3조 중 1.5% 전년비 1.6억 감소... 1인당 42만원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각급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3368억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자치구별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의 범위내에 따라

상이다.

올해 자치구 총예산 22조3578억원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3368억원으로 자치구 총예산 대비 1.5%를 차지한다. 작년과 비교해 1억6670만원 감소했다.

자치구 1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2억4495만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2만4000원이다.

이 중 무상급식비, 교육급여 등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간 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자치구별 특색을 반영해 편성한 교육경비보조금 총예산은 1528억원이다. 보조 여부는 각급학교 신

청에 따라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분담 사업을 제외한 교육경비보조금의 자치구 1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1억1115만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19만2000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역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와 교육청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폐원위기 지원

서울시, 92개 어린이집 선정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를 함께 돌보는 서울시의 새로운 보육 모델이다.

시는 2024년 신규 모집을 통해 20개 공동체, 92개 어린이집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에는 정원 충족률 50%를 채우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 6개소(4개 공동체)를 처음으로 모아어린이집으로 선발했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

각해지는 가운데 영유아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집이 공동체 내 다른 어린이집과의 상생·협력으로 원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장애어린이집, 다문화어린이집이 참여한 공동체 등을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선정된 공동체에 공동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과 생태 친화 환경 조성 목적의 환경 개선비 5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운영비 절감, 입소 공유, 보육 프로그램 공동 시행과 같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만의 강점이 입소문을 타며 보육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모습. /서울시

현장에서의 관심과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모아어린이집이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보육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1조3350억 中 中 小 育 成 資 金 支 원

1분기 지원, 3790억 규모... 접수 시작 지난해 조기 소진으로 올 분기별 공고

인천광역시시는 올해 중소기업을 위해 650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1조 33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1분기 지원은 3790억 원 규모로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 1조 2250억 원보다 1100억 원이 확대된 1조 33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차액보전 1조 400억 원, 매출채권보험 2,300억 원, 협약보증지원 3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 등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기업들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 시기를 연초 1회에서 분기별 공고로 조정했다. 지난해 한꺼번에 신청기업이 몰리면서 5월 초 재원이 조

기에 소진돼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많아 중소기업이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나눠 공고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수혜기업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확대했다.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을 폐지하고 1년 및 3년은 유지하되, 지난해 N 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저리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한편, 협업은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 중소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다수의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한 후 저렴한 은행에서 자금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8 | 해질 / 18:30

3월 5일 (화) / 음력 : 1월 25일

수도권 날씨 / 4 ~ 1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12, 동두천 0/13, 가평 -1/11, 파주 1/11, 서울 4/12, 양평 2/11, 수원 5/12, 용인 5/12, 인천 5/11, 평택 4/11

백령도 3/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쟁으로 연기된 이스라엘 지방선거에서 극우 진영 승리 /사진 뉴시스
▲74조원 벌는 것도 억울한데...머스크, 수수료 8조원 내줄 판

▲국제천문연맹, 천왕성과 해왕성 주변 위성 3개 발견
▲2월 日 자금공급량 5861조원·2.4% ↑...“잔액 작년 3월來 최저”



▲‘대중 억제강화’ 美 AI무인전투기 개발 박차...“업체 선정 착수”
▲중국 달러기준 작년 1인당 GNI 29년 만 첫 ‘전년비 감소’ /사진 뉴시스